

현지조사 후기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김민지

이번 현지조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연구 활동으로, 중국 절강성 용천현(龙泉县)을 중심으로 민국기 향촌 사회의 종족 재산 분쟁과 사법 제도의 실제 운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본 조사는 박사논문을 위한 본격적인 자료 수집의 성격을 띠며, 중앙·지방 차원의 공공 도서관 및 당안관 조사와 더불어, 용천현 관내 향촌 답사, 그리고 이후 소주·상해 지역에서의 보완 조사까지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1. 조사 목적과 문제의식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 절강성 용천현에서 발생한 종족 재산(족산) 관련 분쟁을 통해, 근대적 사법 제도가 향촌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족산을 둘러싼 소송이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종족 내부 질서, 향촌 권력 관계, 그리고 국가 사법 권위와의 접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가 생산·보관되었던 지역의 공간적 조건과 향촌 구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현지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항저우·원저우·용천 지역에서의 문헌 조사와 현지 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 항저우·원저우 지역 문헌 조사

조사 초기에는 항저우에 위치한 절강도서관과 절강성당안관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절강성당안관은 浙江档案网를 통해 소장 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 자료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 후 지정된 컴퓨터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사·인쇄·사진 촬영이 모두 제한되어 필사와 노트북 기록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제약은 조사 효율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동시에 자료의 성격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선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절강도서관에서는 용천현 관련 지방지, 사법 자료, 지도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특히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용천법원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민국 시기 서술 분량은 많지 않지만 박사논문 집필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용천사법당안선편』 중 결락되어 있던 권차를 직접 촬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향후 족산 분쟁 사례를 시기별·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원저우 지역에서는 온주시당안관과 온주시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민국기 소송 당안의 직접 열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절강 지역 법제사와 향촌 규약 관련 단행본, 판본 정보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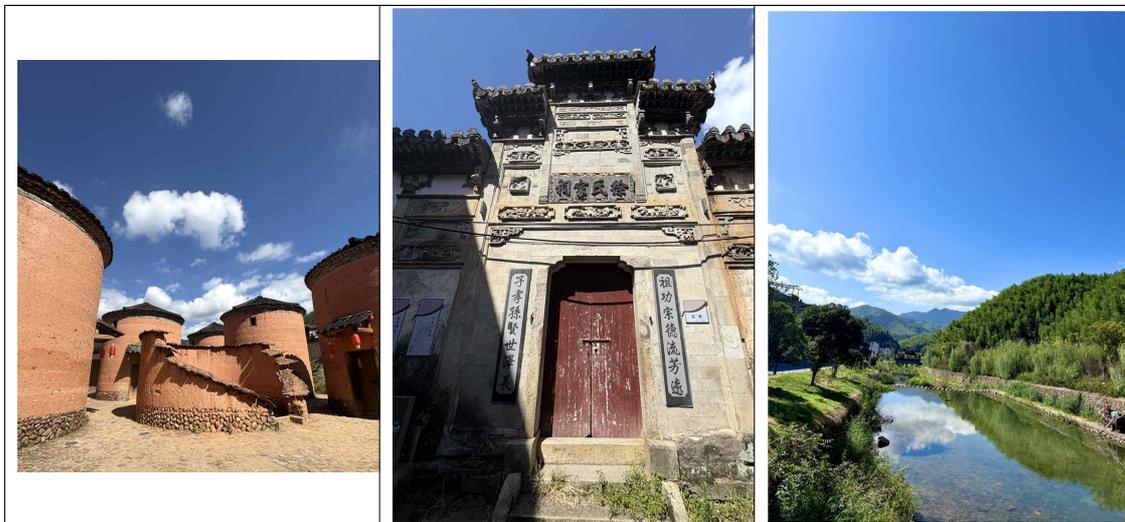


3. 용천현 현지 조사와 향촌 답사

조사 후반부에는 용천시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용천시는 행정구역상 매우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는 소규모이며 향촌으로 이동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험은 문헌 속에서 하나의 행정 단위로 인식되던 ‘용천현’이 실제로는 수백 개의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촌락 세계의 집합체라는 점을 체감하게 했다.

용천도서관 고적지방문헌관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방 문헌과 족보 자료를 열람·촬영할 수 있었고, 이는 성급 기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밀착형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용천사범당안박물관을 방문하여 기존 연구 성과가 전시 형태로 정리된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축적 정도와 향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었다.

향촌 답사로는 원저촌과 하장촌 등을 방문하였다. 원저촌에서는 특정 종족이 마을 전체를 이루는 집성촌 구조와 종사 공간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장촌에서는 청말·민국 시기의 건축 양식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향촌 경관을 통해 사료 속 종족 생활의 공간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민국시기에 조성된 용천시 서씨 의창(종족 공동 식량창고)의 모습	서씨 종사(종족 사당)의 대문	용천시 원저촌의 전경
-------------------------------------	------------------	-------------

4. 상해 보완 조사

현지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서적을 찾기 위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상해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탐색하여, 절강·강남 지역의 민국기 사법 및 지방사회 연구서 가운데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절강도서관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상호 대조하면서 용천현 사례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사적 위치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5. 조사 성과와 향후 연구 계획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자료 수집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박사논문의 전체 장절 구성과 시간적 범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구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937년 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데 한계를 느꼈으나, 용천현이라는 지역의 구조와 향촌 사회의 지속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시기와 그 이후까지 포함한 장기적 분석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지리적 조건과 종족 구조, 종족 재산과 의례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함으로써,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사적 접근을 넘어 공간사·사회사적 분석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집한 자료들은 현재 한국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편집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박사논문 집필과 학술지 투고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 조사는 반복적인 후속 조사와 심화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자,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지역을 문헌 속 공간이 아닌 살아 있는 사회로 재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해주신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프로그램에 감사드린다.